



호남예술제에서 펼쳐진 한반도기 29일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3회 호남예술제 합창경연에서 광주 송원초등학교 학생들이 한태수 작곡의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며 태극기와 함께 한반도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영철 오늘 미국행 ... 폼페이오와 회동 북미, 비핵화·체제보장 최종 조율할 듯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간 실무 협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북한 대외정책의 '총책' 역할을 하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전격적으로 방미길에 올라 주목된다. 북한의 최근 대미·대남관계 개선 전략을 사실상 설계한 것으로 평가받는 김 부위원장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대한 최종조율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

김 부위원장은 29일 오전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했으며, 30일 오후 1시 뉴욕행 중국 국제항공 CA981 항공편 탑승객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에서는 북한의 미국통인 최강일 외무부 북아메리카 국국장대행도 목격됐다.

방미 기간 김 부위원장은 카운터파트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 고위급 대화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북미 양측에서 현 정세 국면을 총괄·주도해 온 책임자인 만큼, 대화가 잘 마무리된다면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어느 정도 윤곽을 보일 것으로

판측된다.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응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 방안을 어떻게 교환하느냐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목표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적대관계 종식'과 체제보장 의지를 신뢰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비핵화 종료 시점이 아닌 적절한 단계에서 제공할 것을 희망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체제 구축도 이런 행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으로서도 CVID에 대한 반대급부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안전보장'(CVIG)을 요구할 수 있어 보인다.

김 부위원장의 방미를 통해 북미가 판문점 실무진 선에서 완전히 정리할 수 없는 핵심 쟁점의 타결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최종 '담판' 성격이 된다.

/연합뉴스

광주비엔날레 D-100

참여작가들 광주방문 작품 제작 준비 나서

2018광주비엔날레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참여작가들이 광주를 방문, 작품 제작과 관련된 리서치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또 옛 광주국군통합병원 등 '5월 광주'를 상징하는 공간이 전시장으로 최종 확정되고 무각사, 이강하미술관 등도 전시 장소로 새롭게 선정되는 등 올해는 광주시 전역에 비엔날레 열기가 가득할 예정이다.

참여작가들은 5·18민중항쟁 기념식에 참여하는 등 광주의 오월을 직접 겪으며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세계적인 영화감독 아피차푼 위라세타쿤은 3일간 광주에 머물며 옛 광주국군통합병원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둘러보며 큐레이터 데이비드 테와 톰 니콜슨, 작가 존 양, 루크 칭, 연중호, 백승우 등이 광주를 방문했다. 6월에도 작가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마이크 넬슨은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광주를 방문, 국군광주병원의 건축물을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시간과 역사에 대한 신작을 제작할 예정이며 호주 출신 우롱 솔로도 광주를 찾는다.

파블리온 프로젝트 참여기관 3곳도 본격적인 전시 준비에 들어갔다. 핀란드 헬싱키 국제 아티스트 프로그램은 지난 8~10일 광주를 방문, 서구 무각사를 최종 전시장으로 확정되었으며 광주시민회관 전관을 전시로 활용할 파리 팔레 드 도교 관계자는 오는 6월 11일 광주를 찾아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46개국 작가 162명이 참여하는 제 12회 광주비엔날레는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을 주제로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66일 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지에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민주 후보들 높은 지지율에 취했나

가만 있어도 당선? TV토론 꺼리고 민심탐방·정책개발 소홀
일부 공무원들 줄서기 등 잡음 ... 현안사업 업무 누수 우려도

6·13 지방선거 D-14

더불어민주당의 고공 지지율 속에서 6·13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일부 여당 후보들이 TV토론회를 꺼리고, 유력 후보에게 줄을 서는 공무원들도 생겨나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높은 지지율 덕분에 '가만히 있어도 민주당 후보는 당선'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일부 후보들은 민심탐방과 정책 개발도 소홀하다는 지적이 다.

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는 등 업무 누수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안이 최근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만큼 국비 확보 작업도 본격화해야 하지만 선거 탓에 다른 해에 비해 행정력이 집중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29일 정의당 광주시당은 6·13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 TV토론회 개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광주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

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지역에서 최소한 3~5차례 광역단체장 후보초청 TV토론회가 계획되고 있던 6번의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방송사는 최소 1회 토론회를 열었는데 광주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 단 한 차례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사 선거도 '여당 후보 TV토론 거부' 공방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 박매호, 평화당 민영삼, 민중당 이성수 등 야3당 전남지사 후보는 지난 28일 민주당 김영록 후보에 TV정책토론회를 공동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논의 중"이라며 참석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부 후보들이 TV토론에 소극적인 것은 지지율이 뒤처진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우려한 탓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민주당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술어진 운동장'에서 선거가 진행돼 일부 후보가 선거에 소극적이다"면서 "민주당 경선 이후 몇몇 후보는 아예 선거 현장 방문 횟수를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큰 경우가 많아지면서 지방선거 병폐 중 하나인 '공무원 줄

서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광주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한 직원을 조사해 광주시도 내부 단속에 나섰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9일 간부회의를 통해 '절저한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주문하기도 했다.

전남도 감사관실도 공직자 선거개입 행위를 집중 감찰하고 있다. 특정 후보자 SNS에 응원댓글을 게재하거나 '좋아요' 클릭 등 선거중립 훼손행위, 금품·향수 수수 등 공직비위 행위 등을 5개반 30명의 감찰반을 운영, 단속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도 일부 줄서기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일부 교육청 직원들이 특정 후보 측 행사에 참여하거나 캠프 사무실에서 목격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선거 기간 행정공백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광주공공항 이천 문제 등 지역 최대 현안 사업들이 선거 탓에 전혀 논의되지 않거나 선거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일보
전라도 1000년 인물 열전
- 영암 = 고려 태사 최지몽 ② ▶18면
KIA 윤석민이 돌아왔다
- 6월 2일 두산전 선반 등판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18년 무안공항직항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짜짜우우~

일본기타큐슈,오사카,다낭,방콕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13일부터 주 3회 출발 / 화,금,일 정기편 확정

운항스케줄 오후(화,금,일) 무안-기타큐슈 18:00-19:10 / 기타큐슈-무안 19:40-20:50

기타큐슈 (일출발) 한정 특가

2박3일 호텔1박 /고급 온천별장1박	399,000 원~
2박3일 호텔1박 / 온천료간1박	499,000 원~
3박4일 호텔2박 /고급 온천별장1박	599,000 원~

야마구치폭격 699,000 원~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취항 !!

7/18부터 ~ 8/21까지 총 19회

7월	18,21,24,25,27,28,30,31	8월	2,3,5,6,8,9,11,12,14,17
----	-------------------------	----	-------------------------

[골프 준특급 +특급] 1,290,000~
[고골프 특급] 1,450,000~
[골프 특급] 1,790,000~

무안 → 다낭 직항전세기 3박4일(화) / 3박5일(금)

2018. 5. 18. 이후 (매주 화, 금 출발) 짜짜우우~

VN 베트남국영항공 (스카이트림) 차별화된 기내서비스

A-321-200 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기내담요,배개 비디오상영

화출발	무안-다낭 08:05-10:40 / 다낭-무안 14:40-20:30
금출발	무안-다낭 21:35-00:10 / 다낭-무안 01:05-06:55

[골드] 다낭,후에,호이안 4일 699,000~
[골드] 다낭,후에,호이안 5일 769,000~
[프리미엄] 다낭,후에,호이안 4일 799,000~
[프리미엄] 다낭,후에,호이안 5일 969,000~

※다낭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오사카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오사카,나라,교토 [2박3일] 699,000원~ 출발일 (6/20,6/27)
오사카,와카야마,교토,나라,고베 [3박4일] 899,000원~ 출발일 (6/28)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블라디/하바롭 전세기 취항 !!

7/11부터 ~ 8/16 까지 총 13회

[알뜰 3성급]	1,090,000~
[실속 5성+3성급]	1,190,000~
[폭격 5성급]	1,350,000~

극성수기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광주 - 제주도

2박3일 (주중) 299,000원~ / 2박3일 (주말) 37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보험비 기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기금, 공항 및 부대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 상가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경비 기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 (최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